

고려불화 도자기판에 '환생'

도판 불화 제작하는 입남재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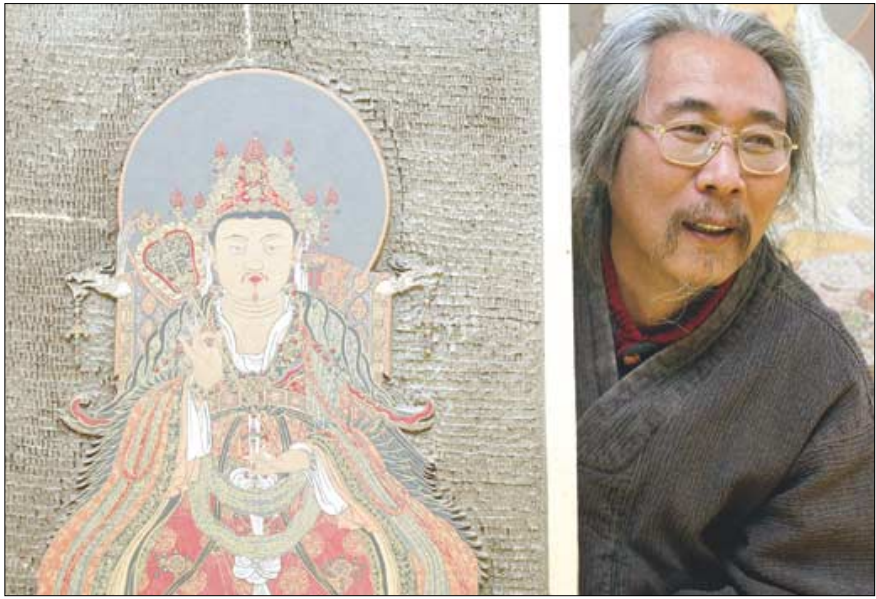
고려불화를 도자기판(이하 도판) 위에 재현하고 있는 도예가 행천 입남재씨(50). 분청사기 작가로 익히 알려진 그는 다완과 그릇으로 이미 수십차례 국내외 개인전을 가졌다. 하지만 입씨는 "고려불화를 도판에 재현해 보니

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천년만년 변하지 않는 도판 불화를 만들어 보이겠다고 각오를 세웠지요."

그때부터 그의 작업실은 찻잔과 그릇대신 도판불화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도판 불화는 그릇 만드는 것보다 몇배의 시간과 정력이 소비된다. 우선 산청과 문경, 여주에서 파운 흙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불화를 그리기 전에 도판이 갈라지는데 있다.

"이 원인을 찾기 위해 처음에는 밤을 지새며 시행착오를 많이 했습니다. 도판 자체의 두께가 일정하지 않거나 밀리는 과정에서 바람을 쐬게 되면 흙속에 있는 수분이 증발해 도판이 갈라지고 뒤뉘러기 일쑤였지요. 또한 흙으로



도판에 석채로 그린 관음보살도.

일본서 고려불화 보고 큰 감동 30년 도예의 길 '대전환' 계기 술한 시행착오 끝 비법 찾아내

기준에 만들었던 그릇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말한다. 30여년 흙을 만지며 살아온 그의 작업 끝자락에서 발견한 것이 도판에 고려 불화를 재현하는 것이었다.

"2년전 개인전시 때문에 일본에 갔을 때 우연히 고려불화를 봤지요. 우리 것인데 모두 일본에 있다는 것에 분통이 터졌어요. 오기가 생겼거든요. 당시들은 비록 종이 그림

섞어 만든 분청사기로 사각형의 도판을 굽는다. 이때 도판의 두께는 같아야 한다. 도판 작업이 끝나면 고려불화의 초(礎)를 대고 불화그릴 자리를 양각한다. 초벌과 재벌구이가 끝나면 그 위에 석채(石彩)로 정교한 고려불화를 그린 후 다시 굽는다. 얼핏 들으면 뭐 그리 어려울까 의아해 하겠지만 20시간의 초벌구이(900℃)와 10시간의 재벌구이(1230℃), 이어 10시간의 삼벌구이(1150℃)까지 끝내야 비로소 도판 불화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다. 보통 한 작품 하는데 한달이 소요될만큼 정성이 깃들여져야 된다. 정교함과 화려함으로 종이에 그려도 어려운게 고려불화인지라 도판위에 그리는 데는 남다른 어려움이 많았다. 작업 할

작업정교해 한 작품에 한달이상 석채로 채색, '수월관음도' 등 완성 5월, 20여점 서울서 전시 계획

빛은 사각형의 도판이 초벌과 재벌구이를 하면 20% 정도 줄어들어 그림의 크기를 맞추기가 쉽지 않았습다. 이외에도 돌가루다 보니 까 화려한 고려불화를 재현해 낼 수 있는 색감의 표현에도 한계가 있었어요."

석채를 구하러 미술품상에 가서 도판으로 불화를 재현한다고 하면 '돈키호테같은 미친 짓'이라며 냉대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그런 말에 신경쓸 것이었다면 애초 흙을 만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주변에서 완성된 도판 불화를 보고 그저 "기다하고 싶은 발심이 생긴다"는 말이면 족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현재 1m 가 넘는 크기의 '지장보살', '수월관음도', '백의관음도' 등 13점을 완성했다. 앞으로 5월 전시까지 10여점을 더 만들 계획이다.

고려불화 재현 작가인 강복사씨는 "흙의 특성상 색채를 내기가 쉽지 않은데 10여가지의 석채로 붓질을 수십번 해가며 고려불화를 그려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라며 "완벽하게 재현하지 않더라도 입씨의 작업은 고려불화를 다른 질감을 이용해 재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면 길을 돌아온 입남재 씨의 영혼의 그릇은 바로 그가 신경을 바쳐 만드는 한점 한점의 도판 불화들이다.

글=김주희 기자 jkim@buddhapia.com 사진=박재현 기자 jwpark@buddhapia.com



세계적으로 정교함과 화려함을 인정받는 고려불화가 수백년간 변하지 않을 도자기 위에 환생하길 발원하며 작업한다는 입남재 씨.

문화 소식

가무악극 '소용돌이' 예술극장 공연 '신명' 되살리며 우리가각의 '모던화' 시도

'한국판 춤추는 오페스트라'를 표방한 서울예술단의 가무악극 '소용돌이'가 오는 2월 26~29일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대극장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우리 선조들의 삶의 문화였던 사물놀이를 통해 각박한 현실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신명'의 의미를 되살려 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서울예술단은 사물놀이에 담긴 우리 문화의 역동

적인 에너지와 세련된 아름다움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이번 공연에서 우리가각의 '모던화'를 시도했다. 먼저 동편, 서편 두 패로 나뉜 놀이패가 생동감 있는 연주에 맞춰 화려하고 다양한 춤과 놀이, 스피디한 이야기 전개로 관객의 흥을 돋군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춤패와 소리패의 구분없이 전통 가각에 맞춰 다양한 도합을 그리며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게 된다. 서울예술단의 주미석씨는 "우리의 사물은 풍물과 음악 노래 춤이 하나가 돼 관객을 순식간에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수 있는 잠재력이 훨씬 더 크다"고 말했다.

시원한 울림...마치 山寺에 온 듯 흥석창 문인회전, 노화랑에서 28일 까지

회가 흥석창(흥익대 동양화과 교수)씨는 지난 40여년 전통 문인화의 정신을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왔다. 문인이나 선비가 취미로 즐기던 문인화의 맑고 그윽한 세계는 흥씨 붓을 따라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화선지에 스며들어 단순하면서도 시원한 울림과 향기를 자아낸다. 그래서 그의 전시장을 둘러보면, 잡다한 세속으로부터 벗어나고요한 산사(山寺)에라도 온 듯한

느낌이다. 2월 28일까지 서울 관훈동 노화랑에서 열리는 '흥석창展'은 2년 전 '재목 40년 전'으로 화력을 돌아본 뒤 한층 여유와 자유로움을 풍기는 화가의 근작전이다. 매화, 국화 등 사군자를 소재로 한 '청(淸) I', '청향(淸香)', '유향(幽香)' 등 20여 점이 나왔다. (02)732-3558.



파동명상수련을 통하면 영통(靈通)을 이룰 수 있습니다.

빙의에 대한 영혼적 현상들을 파동명상요법으로 해결해 내는 빙의 현상에 대한 필독서!

최영식 지음 | 인화출판사 9,500원

저자 범은 최영식은 세계 최초로 탁월한 수행 기법인 파동명상요법을 개발하여 2003년 12월 부산시 사하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유괴살해암매장사건의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그 외에는 전국에서 일어난 많은 강력사건의 수사에 협조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2003년 제 58회 경찰의 날을 맞아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 그리고 영혼적 현상인 '빙의' 때문에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되찾게 해주는 오늘을 살아가는 상처 받은 영혼들의 진정한 안내자이다.

『현재 저자는 많은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파동명상 요법을 강의하고있다』 (다수의 영통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 서울 연구소 약도

동방파동명상연구소 명제슈퍼 세마트

강북구 수유동 백운관리교회 4.19묘역

☎ 02)996-6156

「파동명상 요법」에 대하여

모든 존재는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삼라만상은 진동하고 있고, 제각기 고유한 주파수를 발하고, 또한 저마다 독특한 파동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황도대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데 보병공시대의 입구에 위치해 있는 이 시대는 영적靈의 개화의 시기로 인간의 마음이 열려서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 교신의 실제성을 받아들이는 시기이다. 따라서 산 자와 죽은 자의 교감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는 영성靈成의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차이는 몸이 있고 없음으로 나뉘어 지고 영혼이 입는 외피가 육체라고 할 때 그 물질의 있고 없음에 상관없이 영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파동의 주파수는 항상 우주공간에 존재한다. 그래서 TV나 라디오 채널을 맞추기만 하면 온갖 방송을 다 듣고 볼 수 있듯이 파동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주파수에 채널을 맞추기만 하면 무엇이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를 살다간 수많은 영혼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고유한 파동의 주파수에 채널을 맞출 수만 있다면 그들의 이야기를 알 수 있으며 또한 볼 수가 있다.** 그런 원리에 의해서 영적 현상인 빙의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파동음을 들려주면 그 사람의 몸속에 숨어 있는 빙의령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그 존재들을 다루는 방법만 공부하게 되면 구명식이나 제령, 천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영혼요법이다. 또한 **파동명상을 통해 수행능력이 향상 발달되며 수행자의 근기氣에 따라 영통을 이룰 수 있어 중생을 제도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수련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수련내용

- ◆ 파동명상제령: 제주(祭主) 또는 신도가 몸속의 영가와 대화할 수 있으며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
- ◆ 원격명상제령: 제3자가 파동명상상태에서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가를 불러내어 대화하거나 제령천도 할 수 있다.
- ◆ 영통靈通수련: 특별한 파동명상 기법을 통하여 영통을 열 수 있게 하는 비법을 전수한다. (영통수련은 상담 후 결정)
- ◆ 수련대상: 스님, 법사, 기공사, 의사, 약사, 기타 상담사
- ◆ 수련교재: 기초교재, 비디오 테이프, CD 교재
- ◆ 수련일시: 매월 둘째주, 넷째주 (화~금) ◆ 강의장소: 서울, 부산
- ◆ 수련과정 (1대 1 개인지도 피, 전화문의 바람)

- ① 파동명상 전문반: 파동명상 지도사 수련과정으로 4일간 수련으로 지도사 자격증 수여. (수련비 200만원)
- ② 영통수련반: 상담 후 결정

동방파동명상연구소 ◆ 문의처 : 017-587-0777 051) 806-8500, 817-6156 Fax : 051)817-6157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